1. 사 업 보 고 서

(2019년도)

2019년도는 『건전 경영 및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조직역량 집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상생·협력문화 정착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지속 성장 동력 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 목표 달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건전 경영 및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1억원 달성하고자 노력한 한해였다. 사업부문별 세부 경영방침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농협이념교육 활성화 및 공선출하회원을 중심으로 품종별·지역별·단계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를 위한 지도사업 추진',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한 감귤출하농가 소득 안정화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매사업',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 전문 인력 육성으로 방제처방 능력 향상 및 우수농자재의 공급확대를 통한 불량 농자재의 유통 근절을 위한 구매사업 추진', '표준농산물 운영 기준에 의한 상품진열로 차별화된 농협 매장 구현으로 조합원 편익증진 및 농협역할 제고를 위한 마트사업',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실익보험 추진확대 및 핀테크 시대 대응으로 미래고객 기반인 스마트뱅킹 고객 확보를 통한 질적 성장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 강화를 위한 신용사업', '보장성, 저축성 보험의 균형 있는 사업추진 전개', '신용카드 비중 확대로 수익 구조개선', '경영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전경영 달성, 체계적인 경영관리 및 손익중심의 목표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영업점 지원역량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지원체계 강화,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지도 지원 강화'등에 역점을 두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다.

조합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품감귤 생산기반 구축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현장맞춤형 교육인 '브랜드감귤대학'을 통한 전문지도사를 매년 양성하고 있고, 2019년에도 51명(제14기)이 수료하여 총 674명(누적)의 전문지도사를 배출하였으며, 매년 수료생들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선도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품목농협 구현을 위하여 공선출하회 조직 개편 하였고, 공선출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시장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나갈 것이다.

고객가치 실현 및 고객만족을 위한 2019년 서비스엔이모션 고객만족도조사(CSI)를 실시한 결과 연동지점이 전회차(1차~3차) S등급을 받아 제주도내 1위를 달성했고, 2회차 평가시 일반 경쟁형 부문에서 본점이 전국 1위를 달성 하여 CSI추진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3저 시대(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지속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비이자이익 부문 C3그룹 전

체에서 종합 1위(보험, 외환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로 대표이사 표창, 농작물재해보험 부문 사업 추진 우수 조합으로 선정되어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선도 농협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9년 결산결과를 보면, 총경제사업실적은 2,420억원으로 계획대비 90.0% 달성, 전년대비 △2.6% 성장하였다. 사업부분별로 살펴보면, 판매사업은 하우스감귤, 비가림감귤, 한라봉 등은 실적이 증가 하였으나, 노지 감귤 시세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로 1,862억원을 시현하였으며, 계획대비 93.7% 달성, 전년대비 △2.9% 성장하였다. 우리조합 공동브랜드인 ‘불로초’ ‘귤림元’은 제주감귤의 대표 브랜드로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한 소득 안정화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나갔다. 또한, 공동브랜드인 '불로초'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체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여 소비자 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 '불로초'가 과수부문 10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어 퍼스트클래스를 달성함으로써 명품브랜드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 번 공인받음으로써 명품감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입지를 굳게 다지는 한해가 되었다.

구매사업은 감귤농가의 실익증진을 위하여 시장 지향적 사업추진으로 농가실익 극대화에 노력하였고, 농약사업은 지속적인 영농정보 안내 및 시기별 영농교육을 통하여 실적이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나, 비료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농가 추가 배정량 감소로 성장이 부진하였다. 그리고 FTA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수탁사업 실적은 전년대비 △65.5% 성장하여 구매사업실적은 376억원으로 계획대비 90.2% 달성, 전년대비 0.1% 성장하였다.

마트사업은 세부적인 전략 수립 부재에 의하여 계획대비 부진하였고, 가공사업은 포장재가공사업소 폐점 결정에 따른 제품 생산 및 공급 감소로 가공손익이 적자를 시현하는 등 앞으로의 숙제를 떠안은 한해였다.

이용사업실적은 73억원으로 계획대비 73.8% 달성, 전년대비 18.3% 성장하였다. 소포장 작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APC 작업물량 증가로 이어져 이용사업은 상승하였다. 그리고 감귤유통시스템 기반사업 구축을 위하여 공선출하회 조직을 유통사업단(APC) 출하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제주도 전역에 명품감귤 유통기반을 마련하였고, 노인인력개발원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시니어형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정부 고용 정책에 호응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였다.

신용사업부문을 살펴보면 상호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 및 내실과 성장의 균형 잡힌 사업 추진,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균형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인의 실익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한해였다. 신용사업 주요실적으로는 예수금 잔액 6,354억원으로 계획대비 98.5% 달성, 전년대비 7.2% 성장하였다. 예수금 평잔은 6,071억원으로 계획대비 96.1% 달성, 전년대비 4.9%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은 6,019억원으로 계획대비 95.3% 달성, 전년대비 1.5%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평잔은 5,944억원으로 계획대비 97.9% 달성, 전년대비 6.3% 성장하였다. 예수금 질적 성장 추진, 건전여신 확대 등 시기별·사업부문별로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감귤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조합원 지원을 위해 출시된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을 적극 추진하여 연말기준 총 잔액 81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며 전국적으로도 다섯 번째의 높은 점유비를 차지함으로써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보험료는 183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9.3% 달성, 전년대비 9.1% 성장하였다. 특히, 농업인 실익보험 확대를 통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추진 우수 조합으로 선정되어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경영관리부문을 보면 우리조합 매출총이익은 383억원으로 계획대비 95.8%, 전년대비 6.9% 성장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395백만원으로 계획대비 74.5% 달성, 전년대비 2.3% 성장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따른 인건비성 경비 증가,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사업 실적 감소, 포장재가공사업소 포장자재 공급실적 역조의 악재 속에서도 당기순이익 성장을 이루어낸 한해였다.

2019년도 결산에 있어 조합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출자금 증대 및 각종 적립금 적립을 통하여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지속경영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농협법상 이익잉여금의 50%이상(법정적립금 10%, 사업준비금 20%, 차기이월금 20% 이상)을 내부 적립토록 규정되어 내부 적립하였고, 충당금부분도 신용대손충당금, 일반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을 법정비율 이상 적립하였고 이용고배당이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해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감귤전문 품목농협으로써 조합원 소득 1억원 달성을 위한 판매사업, 구매사업, 지도사업, 신용사업 역량 확충을 위하여 전문 직원 육성 및 조합원 지원을 강화하고, 제2의 감귤산업 전성기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품목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